

# THE문화 '내일의 숲 콘서트' 개최

사단법인 더문화, 21일 문화공간 이룸서 문화 소외계층 위해 마련

사단법인 더문화가 21일 문화공간 이룸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THE문화 '내일의 숲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에게 즐겁거리를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된 공연이다.

12일 더문화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가온 오페라단 단장 겸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강훈과 프리마돈나 앙상블, 서울모던앙상블 멤버로 국내외에서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서운정을 비롯해 2020년 디스커버리 시리즈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독주회를 열었던 피아니스트 이정아, 일리아니 피아노 트리오 연주자들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주경, 첼리스트 황지연, 피아니스트 정혜연을 초대해 클래식을 사랑하는 음악 애호가와 시민들에게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너 강훈은 카투소의 L. Dall'i, 그라나다의 'Agustin Lara'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서운정의 'Over the rainbow', 'I could danced all night'의 솔로곡에 이어 강훈과 서운정이 '사랑가', '아름다운 나라', '축배의 노래'를 피아니스트 양혜



사단법인 더문화가 21일 문화공간 이룸에서 THE문화 '내일의 숲 콘서트'를 개최한다.

조의 연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2부에서는 피아노 이정아의 솔로곡 베토벤의 'Tempest'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박주경, 첼로 황지연, 피아노 정혜연이 멘델스존의 Piano Trio No. 1 in D minor, Op.49 작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어렵고 지루한 클래식 장르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분위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내악 반주에 맞춰 예술가들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이번 '내일의 숲' 콘서트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월간 더문화>를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다.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저녁 전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 퀄리티의 공연을 선사함으로써 전주시 더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지역민과 예술인들에게 더 나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더문화 이운정 예술감독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문화, 예술을 매개로 더욱더 많은 분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문화 소외계층에게 위로와 희망의 노래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콘서트 역시 연주자와 관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 좌석 한 자리 띄어 앉기'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돼 백신 접종 완료 2주가 지난다는 증빙자료 지참은 필수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음성 PCR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예외자로 분류된 경우 의사나 보건소의 소견서를 지참하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공연 정보 확인 및 예매 문의는 문화공간 이룸 홈페이지나 전화(063-223-5323)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나의 기록, 군산의 역사' 기증자료展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5월 31일까지 기획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군산시민의 삶이자, 군산의 역사가 담긴 '나의 기록, 군산의 역사' 기증자료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기증했으나 아직 선보이지 못한 자료를 선정한 군산의 옛 행정기록,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일상의 생활자료, 근대의 교육, 예술가의 기증, 대를 잇는 문중, 생전 이영춘과 명창 최란수, 군산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기증인 한 명, 한 명의 자료를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 9월 개관 이후 4년만인 2015년 전국 5대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됐다. 또 2016년 유료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 근대역사·미술·문학·독립운동·금강생태라는 군산의 이야기가 있는 9개 전시관을 통합 운영해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27명의 기증자가 박물관 전체 소장자료의 40%에 해당하는 1만3,844점의 소중한 근대역사 자료를



를 시에 기증했으며 이는 전국의 국립박물관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근대문화 유산을 보유한 박물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공모

24일~2월 4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대상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연극 및 거리극, 퍼레이드, 거리예술 등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 문화관광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 간이며, 접수 방법은 공문접수 및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 및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공연으로, 주말 낮 시간대 시·군별 14회 상설공연과 통합퍼레이드 1회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유희적 운영과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지역별 관광 형태와 계절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류심사와 제안서를 설명하는 PT 심사로 이뤄지며, 오는 2월 1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최종 선정된 전라북도 5개 시·군과 수행단체에 1개 시·군당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

에 빠진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자들이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를 통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06, 7469)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 가져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2022년도 박물관을 알릴 제2기 대학생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신설된 대학생 SNS 기자단은 블로그 취재 기사 작성,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SNS 홍보 활동을 펼쳐 국립전주박물관을 온라인상에서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취재분야 4명, 영상제작분야 4명 등 이번엔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며, 국립전주박물관 전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관련 취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단은 박물관 현장을 취재·보도하는 취

재분야와 박물관을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담아내는 영상제작분야 각 4명씩 선발됐으며, 전북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기자단 교육, 박물관 투어 등이 진행됐다. 홍진근 관장은 "기자단이 수개월 간의 단장을 끝내고 올해 초부터 선보이고 있는 상설전시관의 새 모습뿐만 아니라, 전시와 교육 역할은 물론 전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볼거리와 유희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을 널리 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